

승부의 政治家 펠리페 곤살레스

— 그의 리더십과 이념 변화를 중심으로 —

권태면
駐스페인대사관 1등서기관

20세기 스페인의 역사에 우뚝 솟아 있는 두 사람이 있다. 그 하나는 1936년 좌우익간의 內戰 이후 거의 40년간 스페인을 우익독재로 물들인 프랑코 총통이요, 다른 하나는 1982년 이래 연속 4회 집권을 기록하고 있는 곤살레스 수상이다. 투우와 플라멩고로 연상되어지는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 전 세계를 손아귀에 넣고 포효하던 16세기의 영광은 간데없이 완전한 2等國으로 전락한 스페인은 요즈음 곤살레스의 영도 아래 EC통합을 결승점으로 뛰고 있다. 이 글은 1년 전부터 스페인에 근무중인 필자가 각종 자료와 그간의 관망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스페인을 이끌어가고 있는 곤살레스 수상의 이념과 리더십에 관하여 정리해본 것이다.

60년대,
바람둥이에서 정치학생으로.....

펠 리페 곤살레스(Felipe Gonzalez)
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 것인가

지 모르고 전 국민이 좌우익으로 갈라져 內戰을 벌인 뒤인 1942년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세비아에서 태어났다.

당시는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 다시피하여 그야말로 초근목피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게으르고 낙천적이기로 정평이 난 스페인 국민이 역사상 유일하게 근면과 결핍으로 생활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좌파 인민전선을 타도하고 1인 독재체제를 수립한 프랑코 총통은 이러한 피폐로 인하여 내전의 종결과 동시에 터진 세계2차대전에서 내전시 자신을 지원해준 독일과 이태리의 지원요구를 거절하는 한편, 후에 연합국측의 참전 요구에도 불응하여 종전후 오랫동안 국제적 고립에 빠지게 되었다.

곤살레스의 부친은 북부의 빌바오에서造船所 근로자로 일하다가 남부의 세비아에 정착하여 자수성가한 소사육업자로 자녀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어 장남인 곤살레스가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기를 기대하나 곤살레스는 사업가집안 출신으로 교양이 있었던 모친의 덕분으로 다행히 4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려서부터 조숙한데다 잘생긴 곤살레스는 여자아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규율이 엄한 카톨릭 고등학교에서 15세에 퇴학을 당하는 등 곡절을 거쳐 18세에 세비아 법대에 진학한다. 대학 초기 그는 당시의 우수한 교수들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에 다소 관심을 갖게 되나 고급 옷가게나 드나들고 당시 학생으로서는 유일하게

운전학원에 다니며 여학생들을 쫓아다니는 한량에 불과했다.

대학 초기 곤살레스는 당시의 우수한 교수들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고 후반기에는 사회당 청년회에 가입하며, 벨기에 유학에서 돌아온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몰입하게 된다. 졸업하면서 사회당의 핵심그룹에 끼어들게 되고 1969년 약관 27세의 풋내기 당원으로서는 국내 개혁파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 청년당원들의 리더가 된다. 개혁파는 당시 자본주의 결사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 후반기에 당시 불법단체인 사회당 청년회에 가입하고, 수개월간의 벨기에 유학에서 돌아온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몰입하게 된다. 당시 사회당은 당원이 4,000명 미만이었으나 정당 활동이 금지된 프랑코 독재 치하에서 우수한 당원과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서 당원들은 假名으로 지하활동을 하고 있었다. 세비아의 聖者 이름을 따서 Isidro라는 가명을 가진 곤살레스는 졸업과 동시에 母校에서 노동법 강사를 하면서 동료들과 합동법률사무소

를 개입하면서부터 점차 사회당의 핵심그룹에 끼어들게 되는데 그의 법률사무소는 고유의 업무보다는 정치성을 띤 젊은이들의 집회소나 다름이 없었다.

1932년에 창설된 사회당(공식 명칭은 스페인노동자사회당)의 주요 간부는 프랑코 독재 이후 망명하여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을 계속해 왔는데 1960년대 말부터는 과거의 좌익사상을 고수하는 해외의 노장 보수파(Historicos)와 신선하고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국내의 신진 개혁파(Renovadores)로 갈라져 대립하게 된다. 곤살레스는 1969년 약관 27세의 풋내기 당원으로서 전당대회에서 총재에 대항하여 개혁파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기여한 이후 국내 청년당원들의 리더가 되어 1970년에는 당집행위원 수를 해외파와 국내파간 동등하게 하고, 1972년에는 국내파가 위원 12명 중 9명으로서 당을 주도케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당시 개혁파는 자본주의 결사 반대, 교회와君主制 배척 등을 주장하는 시뻘건 젊은이들(Rojazos)로 불리우고 있었다.

1970년대,

無名당원에서 野黨총재로

1974년은 곤살레스의 운명이 좌우된

결정적인 해이다. 프랑스에서 개최된 마지막 망명 전당대회중 총재 선출에서 대부분의 당원들이 추대해온 Nicolas Redondo는 자리를 탐내지 않고 당원들에게 곤살레스를 지지토록 요청한 결과 곤살레스가 3,597표 중 3,252표를 얻어 갑자기 총재당선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순간의 결정이 때로는 운명을 좌우하는 듯,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 Redondo는 全國勞總의 회장으로서 곤살레스정부에 맞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다.

당시 국내파는 유럽 사회주의노조 등 해외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국내파가 당원들이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어 신분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당원비를 두배로 지급하고 허위 당원들을 만들어 투표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어찌되었건 無名の 당원으로 시작하여 수년만에 당권을 장악한 곤살레스는 물을 만난 고기처럼 정치가로서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는 유럽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Palme, Mitterand, Brandt, Soares 등 당시 유럽의 사회주의 巨頭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 데 노력하는 한편 정당정치에는 자금력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 기타 유럽정당들의 자금지원 확보에 노력한다.

한편 당시의 정치상황도 곤살레스에게 호기로 작용한다. 프랑코가 왕정복고를 결정하고 老病으로 인해 직접통치가 어려워지면서 정보기관도 사회당의 존재를 크게 개의치 않게 되어 곤살레스는 지하활동 중 수차례 검거되었으나 장기복역은 피할 수 있었다. 1974년부터는 언론규제도 완화되어 신문들은 사회당 총재인 정체불명의 Isidro가 32세의 Felipe Gonzalez라는 사실과 그에 관한 기사를 공공연히 게재하였으며 경찰도 각종 집회에 나타나 그를 더이상 체포하지 않게 된다.

프랑스 망명 전당대회에서 곤살레스는 무명의 당원에서 총재 당선의 영광을 얻는다. 1976년에는 군소정당 연합체의 우두머리로 등장하면서 스페인 사회당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임을 연설한다. 1977년 총선에서는 제1야당을 이끄는 총수로 부상한다. 사회당은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선명성과 단결성을 보여주었으나 과격성은 역효과를 내어 1979년 총선에서 패배하게 된다.

1975년에 프랑코가 사망하고 王政이

회복되자 그는 군소정당들이 구성된 연합체의 우두머리로 등장하면서 1976년 12월에는 스페인 사회당 창설이래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스페인 사회당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서 계급이 없는 사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는 연설을 한다. 그 자리에는 물론 브란트, 미테랑, 팔메 등 유럽 사회당의 거물들을 초청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1977년부터는 정당의 합법화 조치에 따라 160여 개의 정치단체가 난무하였으나 텔레비전에 등장하기 시작한 곤살레스는 남자로서의 매력과 셔츠차림의 소박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달변으로 일약 정계의 거물로 등장, 1977년 6월 총선에서 30%의 지지를 얻어 Adolfo Suarez의 民主中道聯合黨에 이어 제1야당을 이끄는 총수가 된다.

수아레스 정부 하에서 사회당은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의회 내에서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 선명성과 단결력을 과시하면서 잔인하리만큼 공격적인 야당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나 이와 같은 과격성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수아레스는 政情이 불안해지자 1979년 3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 마르크스 정당으로서 교회의 적이요 이혼과 낙태를 주장하는 사회당이 집권할

경우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공포심을 조성함으로써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변신.....

총선에서 패배한 곤살레스는 1979년 5월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정치승부사로서의 일대 도박을 감행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전체국민에게 영합되지 않는다는 기본 판단 하에 그는 전당대회에서 사회당의 이념과 정책 중 마르크스주의와 관계되는 것들을 삭제해야 한다는 중대 제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노도와 같은 비판이 일어나자 과감히 총재직을 사퇴한다.

실의에 빠진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 대회장에 달려온 그의 부인 Carmen은 기자회견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자식들과 같다”고 강경론자들을 비판하였다. 1989년 이래 사회당의 하원의원이기도 한 그의 부인은 전형적인 프랑코파에 속하는 공군대령의 미모의 딸로서 대학시절에 이미 사회당과 노조에 가입하여 알게된 곤살레스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사회당이 극좌 혁명주의,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온건화되어 당시 유럽을 풍미하던 사

회민주주의 정당과 같다고 인식하면서 곤살레스에 대한 동정적 지지를 보내게 됨에 따라 곤살레스는 불과 4개월 후에 강경파들을 물리치고 다시 당권을 장악하게 된다.

1980년대의 곤살레스는 사회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한다. 국민들은 사회당이 극좌혁명주의,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온건화되어 당시 유럽을 풍미하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지지를 보낸다. 이제 그는 스페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실리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그의 이와 같은 이념적 변절을, 집권을 위한 계략의 하나로 비판하는 부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가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한 것이 이념적 확산에서 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간 자본주의를 배척해 온 그는 1977년 모스크바 방문과 1980년의 미국 방문을 통해 “모스크바에서 사니 뉴욕의 지하도에서 칼에 찔려 죽는 것을 택하겠다”는 그의 표현이 말해주듯이 스페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심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감한 결단은

승부사로서의 그의 정치적 기질과 실리주의적인 (Pragmatic)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81년에 들어 의회내 과반수 미만의 弱體政權을 이끌던 수아레스가 계속되는 ETA의 테러 및 경제불황으로 사임한 후 정국은 불안을 거듭하였으며, 의회를 습격한 일부 군인의 쿠데타 기도가 국왕의 강력한 개입으로 중지되는 등 사회혼란이 계속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1982년말 총선이 실시되어 곤살레스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소유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 탈피하여 온건사회주의자, 무언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가라는 일반국민의 인식을 등에 업고 변화(Change) 라는 슬로건하에 철저한 조직과 전략으로 압승을 거두게 된다. 더욱이 이 선거에서 집권당이던 민주중도연합이 12석으로 몰락한 이후 견제가능한 야당세력의不在는 1986년 사회당의 2차집권을 가능케 하는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집권에 성공하여 수상의 집무실 겸 관저인 Moncloa에 진입한 곤살레스는 당원은 물론, 국내외의 일반적인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사회주의와는 전혀 판이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는 대외적으로 과거의 反美主義에서 완전 선회하여 親西方 온건노선을 추구하면서 대내

적으로는 2백만의 실업자, 수천개의 중소 기업 도산 등 1929년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태에 처한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치중한다.

털복숭이의 구렛나루와 귀를 뒤덮은 헝크러진 머리, 체크무늬셔츠와 골덴잠바의 투쟁운동가로서의 이미지와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세비야의 가난과 노동자들 (Descamisados) 의 슬픔을 결코 잊지 않으리” 라던 수상실 입성취임사가 무색하게도 그는 6천만 달러를 들여 세계적인 수준의 아방궁으로 치장한 Moncloa에서 1,000명의 수상실 직원들을 거느리고, 주로 은행장이나 기업인들만을 접촉하는 행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였다.

복잡한 사고와 예측불가능한 곤살레스는 마르크스주의를 버리더니 사회주의 정책마저도 팽개치고 완전히 자본주의자로 변해버린 것인가. 재벌위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순수좌파들은 대부분 탈당하여 지금은 제3당이 된 좌익연합(IU) 등으로 빠져나간다.

야당시절 ‘백년간의 정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정치윤리를 최대로 강조해온 젊은 당간부들이 3C인 집과 자동차와 애인 (Casa, Coche, Compañera)을 고급으로 바꾸어가자 지식인들마저 정권의 도

덕성에 의문을 가진다. 집권은 반복되나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만 계속되면서 없는자의 복지에는 무관심해진 정부에 대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배신감은 악화된다. 급기야는 곤살레스의 옛친구인 Redondo가 이끄는 勞總을 중심으로 D-14로 유명한 20세기 스페인 최대규모의 총파업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불만은 극도에 달한다.

1982년 총선에서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소유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 탈피하여 온건사회주의자, 무언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가라는 국민의 인식을 얻어 압승을 거두게 된다. 한때 정권의 도덕성, 20세기 최대규모의 총파업사태 등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설득력 있는 승부사로써 뛰어난 상황 적응 능력으로 이를 극복, 제 3 차 집권에도 성공한다. 지금 그는 유럽통합의 적극 추진자로서 최선봉에 서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집요하게 설득하는 승부사, 국내 및 국제정치에 있어 혼자서 (autonomous) 가능한 일은 없다는 기본 인식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이 뛰어난 곤살레스는 미테랑

의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과정을 보고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 곤살레스와 Alfonso Guerra 부수상이 이끄는 권위주의적인 쌍두마차는 온갖 비판에 대해 끄덕도 없이 1986년의 EC가입 이후 대규모의 해외자본 유입과 경제개방 등으로 눈부신 외적성장을 거듭하면서 도전적인 야당세력의 부재 하에 1989년에도 큰 어려움 없이 3차 집권에 성공한다.

비판자들은 그가 집권할 경우 파격적인 정치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로 전통적인 집권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파묻히는 스타일로 연극이나 음악회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업무협의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내의 식당에도 나가지 않고 Moncloa에 갇혀 있다고 한다. 모든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성격과 집권자의 고독 때문인지 그는 관저의 뜰에서 각종 채소를 가꾸고 일본 방문 후에는 분재에 취미를 들인 식물학자가 되다시피 하였고 최근에는 사진에 흥미를 붙여 인화실에 파묻혀 있는 등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곤살레스號의 행로.....

곤살레스의 정치역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게라는, 섹시하고 두꺼운 입술의 곤살레스가 연애에 탐닉하던 대학초기에 이미 사회당의 이론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으나 뒤늦게 들어온 친구가 당의 패권을 쥐게 된 이후 30년간 그의 아래에서 2인자에 그치는 운명을 감수하게 된다.

스페인의 곤살레스는 지금까지 이념의 변절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으나 프로급에 도달한 현실정치가로서 특유의 카리스마로 스페인호를 몰고 가는 선장이다. 이제 그 어려운 역사를 거쳐왔던 스페인을 유럽의 민주국가라는 이미지로 올려놓고 세계 8위의 GDP 국가에서 G-7의 대열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곤살레스의 투혼이 돋보이고 있다.

그는 “나는 가시요 펠리페는 장미꽃이다”고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갈수록 만발해가는 장미꽃을 위해 언제나 의견의 종합능력, 콘센서스 도출을 위한 협상능력 등은 차기 EC 위원장이 되기에 안성맞춤

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1993년 초에는 브란트 死後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의장직을 固辭한 바 있다.

배우 나탈리우드를 좋아하며 손수 만든 감자부침을 즐기던 시골청년에서 40세에 스페인의 운명을 걸머지게 된 곤살레스의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도양을 발견하겠다고 출범한 콜럼부스가 중도에 아메리카에서 닻을 내린 것처럼 마르크스의 유토피아를 향해 떠난 곤살레스호는 사회민주주의의 섬 주변을 맴돌다가 이제는 자본주의의 대륙을 향해 기수를 바꾼 것이 분명하다.

분석가들은 곤살레스가 사실 집권 당시부터 사회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집권후 세계의 정치·경제적 세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 주요국들과의 유대 없이는 스페인의 발전이 어렵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와 같은 단순명쾌한 판단 하에 자신이 반대해온 스페인의 NATO 잔류 및 EC 가입을, 정권을 내걸고 추진하였으며 현재도 유럽통합의 적극 추진론자 중 최선봉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의 변절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으나 그는 프로급에 도달한 현실정치가(Realpolitik)로서 특유의 카리스마로 스페인호를 몰고가는 선장이다. 85

년 중국 방문시 등소평이 '서양의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추켜올린 그는 등소평에게서 '취만 잘 잡으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문제될 게 없다'는 격언을 배워 온 실리주의자이다.

600 년간의 로마지배, 700 년간의 회교도 지배 하에서 떨치고 일어나 한때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나 가난하고 힘 못쓰는 이등국가로 전락하고, 심지어는 지난 세기중 43 번의 쿠데타와 금세기중 39 년간의 프랑코 독재에 시달리던 스페인에 어쨌든 유럽의 민주국가라는 이미지를 세워 놓고, 세계 8위의 GDP를 가진 스페인을 G-7의 대열에 진입시키고자 무리한다는 일부의 의견에도 아랑곳없이 유럽통합으로 오르는 암벽에서 밧줄을 움켜쥐고 안간힘을 다하는 지도자이다. 그의 行路를 지켜보자. ♣

Another Felipe. *El mundo*, 1992. 10.

Bocos, Fermin. Great Transformation. *El mundo*, 1992. 10.

Montero, Rosa. Gonzalez, I feel old. *El pais*, 1978. 10.

Samprún, Jorge. Man of a European Nation. *El pais*, 1992. 10.

Gonzalez, Felipe. Ten years after. *El pais*, 1992. 10.

Gallego, Soledad. Radiography of a decade. *El pais*.

Riquelme, Julio. Felipe, man of change. *El mundo*, 1992. 4.

Navarro, Julian. Profile of Gonzalez. *El mundo*, 1992. 6.

참 고 문 헌

Gutierrez, Jose. 1992. *La Ambicion del Cesar*, Spain.

Vizcaino, Fernando. 1991. *El Señor de los bonsais*. Spain.

Spain, Miteuropa on the med., *The Economist*, 1992. 5.

Navarro, Julian. Another nation,